

일본선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선교소식(11월)

이제 겨울의 문턱에 들어와 있어서 그런지 만경 들판은 벌써 겨울 추위가 느껴집니다. 후원자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오며 저희를 위해 변함없이 보내주신 재정, 기도와 사랑의 후원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오며 선교 소식을 올려드립니다.

1. 일본선교회의 활동 보고

일본선교회는 7명의 실행위원과 15명의 일반회원 총22명이 한 마음되어 일본지부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변함없이 섬기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어김없이 매월 마지막 금요일은 본부인 만경중앙교회(담임:오진양 목사,목회자대표실행위원)에 모여 일본선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사역, 그들이 섬기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 열심히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의 중보기도가 한 가지 한 가지 응답되어지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일본선교회의 보람에 흠뻑 잠기곤 합니다.

2. 일본선교회가 섬기는 일본지부의 선교사와 교회 소개

저희 일본선교회는 바울선교회 일본지부 10가정의 20명, 그 외의 1가정 등 총11가정의 22명의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리즈로 두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두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 장성훈/김주신 선교사(자녀: 대한, 사랑)

장성훈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포도나무교회는 가나가와현 자마시에 있는 교회로서 1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담임목사가 없는 무목교회였는데 장성훈 선교사님이 초청을 받아 금년 1월부터 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일본인 교회를 담임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일본에는 8000여 교회 중에 아직도 1000여 교회가 담임하는 목사가 없는 무목교회입니다. 한국인 선교사는 일본인 교회를 맡아 대부분 목회를 잘하여 일본 신자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 지 모릅니다. 장성훈 선교사님의 사모님 김주신 선교사님은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다가 은퇴하신 김만용 선교사님의 차녀입니다. 김주신 선교사님은 최근에 득녀하셨습니다.



ブドウの木教会(포도나무교회)



(2)전해석/오오가네 선교사(자녀: 주은, 주현)

전해석 선교사는 15년전에는 일본에서 사역하다 호주에 있는 일본인교회의 초청을 받고 15년간 일본인 호주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 중에 작년에 다시 일본으로 복귀하여 영광성서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사모님 오오가네 선교사는 일본인으로서 두 분이 아주 성실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두 딸 주은과 주현은 아직도 호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3. 전형구 선교사의 만경고넬료교회 목회

저는 만경고넬료교회를 섬기기 시작하여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는 주일낮예배 설교와 주보제작 및 신자관리 등을 맡았고 주일저녁예배와 수요일예배는 다른 선교사에게 맡겨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91세 고령이신 이동휘 목사님은 매일의 새벽기도를 맡아 주셨고 월1~2회 주일낮예배 설교도 맡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의 95%를 바울선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섬기는데 지출하며 온전히 세계선교만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는 아름다운 선교공동체입니다. 이선교사는 저녁식사준비 등을 위해 봉사하고 장남 사무엘은 마라나타 찬양단의 반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마다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예배를 드리는데 만경고넬료교회는 10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지금 만경 들판은 이미 벼를 모두 추수하였고 밭곡식도 추수가 끝나가고 있어 설립 이후부터 추수기에 맞추어 추수감사주일을 셋째주일에 지켜오고 있습니다. 만경고넬료교회는 바울선교회 센터 3층 대강당(대예배실)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은 주일예배 드리는 모습과 추수감사절 강당의 장식입니다.



4. 기도제목

- (1)하나님께서 일본선교회를 위해 더 많은 실행위원과 회원을 인도해 주시도록
- (2)일본선교회를 통한 기도와 재정지원이 일본 선교사들과 일본교회에 큰 힘이 되도록
- (3)일본지부 11가정의 선교사들의 생활비와 사역비가 채워지고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2025년 11월 10일

전형구, 이인숙, 사무엘 드림